

2019학년도 동계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결과보고서

1. 기본정보

파견국가	필리핀	파견도시	수빅
파견대학	바탄반도주립대학	기간	2020.01.28.~2020.02.22.

2. 파견대학, 수업, 필드트립 등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<p>대학 위치, 규모 및 시설,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</p> <p>클락국제공항에서 약 1시간정도 걸리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수빅홀리데이 빌라의 Enrique건물에서 머물렀다. Enrique건물 바로 앞에는 cafeteria와 classroom이 있었다. 규모는 큰 편이였고 풀장도 있었다. 시설도 생각했던 것보다 낫지 않아서 만족스러웠다.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한적하고 아늑하다. 또한 Class room은 대체적으로 대학교 느낌 보다는 학원 같은 분위기였다.</p>
수업	<p>수업내용, 수업방법, 강사, 과제,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.</p> <p>수업은 1:1수업과 그룹수업으로 나뉘었다. 1:1수업에는 reading, vocabulary 수업이있었다. 1:1수업을 할 땐 선생님들께서 오로지 나한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쉽게 질문할 수 있었고 틀린 문법 등은 바로 바로 잡아주셨다. 그래서 그룹수업보다는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. 그룹수업엔 mmc, speaking, face to face수업이 있다. 다른 사람들과 같이 수업을 함으로써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어문장들, 의견, 생각 등을 들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. 또한 그룹수업 선생님들은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신다. 과제는 전혀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가끔 내주신다. Speaking 수업의 경우 가끔 test를 보는데 test보기 전에만 준비를 해가면 될 것 같다. 전반적으로 맞춤 수업을 해주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는데 있어서 전혀 힘들지 않았던 것 같다.</p>

필드트립	<p>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 (필드트립)에 대해 서술해주세요. - Activity 종류, 내용, 준비물, 추가비용 여부 등</p> <p>매주 화요일마다 3시부터 5시에 Activity를 했다. Activity 종류엔 Greeting, game day, sports day, drawing day 등이 있었다. 그 중 Greeting이 기억에 남는데 첫날에 진행 된 Activity였다. 서로의 이름을 잘 몰랐었는데 이 활동을 통해 친밀감이 생기고 어색함이 사라지는 마법 같은 활동이었다.</p> <p>주말 Activity에는 시티투어, 요트투어, 무비, 워터파크 등이 있었다. 이 중 워터파크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. 더운 날씨를 한 방에 날려주었고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활동이었다.</p> <p>준비물은 수영복, 가방, 슬리퍼 등이 필요하다 추가비용은 전혀 들지 않았다.</p>
------	-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<p>현지 기후 및 유의점</p> <p>필리핀의 날씨는 한국의 여름날씨와 비슷하다. 비 시즌이 아니여서 필리핀에 있는 동안 비가 1번밖에 오지 않았던 것 같다.</p>
안전	<p>현지 안전 상황</p> <p>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전했다. 위협적이기 보다는 호의적이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다.</p>
숙소	<p>기숙사 시설, 분위기, 규칙, 유의사항 등 전반에 대한 평가</p> <p>기숙사 시설은 사용하기에 편리하였고 아늑한 분위기였다. 특히 빨래 서비스랑 룸 서비스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. 통금시간은 평일엔 10시였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12시였다. 밖에 나갔다가 기숙사로 들어올 때 짐 검사를 한다. 와이파이를 로비에서 잘 터지는데 간혹 안될 때가 있어 불편하다. 또한 방마다 다르지만 내가 이용한 방에는 전자레인지나 가스레인지가 없어서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없었다. 로케이션이 좋지 않아 반드시 택시나 FB를 이용해야 한다.</p>

식사	<p>학교식당 (○) 외부식당 () 기타 ()</p> <p>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,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</p>
	<p>학교식당에 매우 만족하였다 입맛에 잘 맞았고 한국음식이 생각나지 않도록 책임져주었다. 그치만 이상하게 많이 먹어도 배가 찻다는 느낌을 받지 못해 한번 더 저녁식사를 외부식당에서 하였다. 외부식당은 매우 저렴하여 가성비가 좋았다.</p>
교통	<p>시내교통 관련</p>
	<p>교통비가 저렴해서 만족스러웠다. 또한 SM mall 쪽으로 가는 무료셔틀버스가 운행하는 것도 있어서 시간대를 미리 알아 두면 좋을 것 같다. 필리핀에서 트라이시클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길 건널 때 주변을 잘 둘러보고 건너야 할 것 같다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: 550,000원

항목	비용(원)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식비	350,000	레스토랑
기념품	120,000	텀블러, 지인선물
옷, 신발	30,000	원피스
교통비	50,000	택시, 트라이시클, FB
합계	₩550,000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
1. 책가방 챙기기

- 교과서 5권 정도를 받게 되는데 수업시간에 들고 가야 하므로 책가방을 챙기는 것이 좋다.

2. 라면포트기 챙기기

- 방에 대부분 가스레인지가 없으므로 라면포트기를 챙겨가면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다.

3. 동전지갑 챙기기

- 생각보다 동전이 많이 생기므로 따로 챙기면 좋을 것 같다.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본인의 경험담, 느낀점,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.

나의 단점은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할 때 미리 겁을 먹고 움츠러드는 것 이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고 오히려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. 또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귄 수 있어 좋았다. 내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. 이번 계기를 통해 영어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었다. 앞으로 토익 공부를 할 것이고 내가 부족한 Listening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영화나 드라마 등을 자주 시청하며 발음 등을 따라해 볼 것이다.
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 필수)



Face to face



a pajama party



Punishment



Yacht tour



With my teachers



mmc festival